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聖地巡禮旅行) 발전방안 모색*

Searching for The Christian Relics of Evangelist Jun-kyung Moon Development plan for th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이웅규 (WoongKyu Lee)**

김농오 (NongOh Kim)***

이창훈 (ChangHun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In connection with the pure spirituality and martyrdom of Eva. Jun-kyung Moon, the 'Pilgrimage Route of the Twelve Apostles',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was proposed to develop a travel program to pilgrimage Korean historical sites that have been neglected or damaged. The main purpose was to develop a pilgrimage to the Holy Land centered on the martyrdom of Eva. Jun-kyung Moon.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theoretical study to give meaning to the Christ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Eva. Jun-Kyung Moon. In addition, we devised a plan to develop a pilgrimage program and schedule for Eva. Jun-kyung Moon, which can be easily found, viewed, understood, and remembered by many people. As a result, First, a walking pilgrimage program for the same day, 1 night 2 days, 2 nights 3 days, etc. was present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ilgrimage product by Eva. Jun-kyung Moon were maximized; Third, using the 'Mosil Road' that follows the footsteps of martyrdom; Fourth, linkage with Soak Church, and Fifth, the direction of continuous creation of holy sites related to Christian historical sites by Eva. Jun-kyung Moon was suggested. As suggested by this study,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hrist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Sinan-gun, Jeollanam-do, which contains

* 2022년 2월 17일 접수, 3월 16일 최종수정, 3월 17일 게재확정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unikorea@bu.ac.kr

*** 국립목포대학교(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과대학 조경학과 명예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nongoh@hanmail.net

**** 국립목포대학교(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과대학 조경학과 조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leech4298@mokpo.ac.kr

the precious evangelism and martyrdom history of Eva. Jun-kyung Moon, is that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pilgrimage program is not human-oriented but natural. It has to be approached from a directional point of view.

Key words : Evangelist Jun-kyung Moon, Pilgrimage to the Holy Land, Christ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12 Apostles pilgrimage

1. 서론

오늘날 종교관광(宗教觀光)이 미치는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긍정적 영향이 재조명되면서, 관광 산업 및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박의서, 2011: 123; 백규리·이계희, 2021: 23-38). 과거 신앙활동에 국한되었던 종교관광은 최근 다양한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반에게 대중화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다원적인 사회현상 속에서 관광객의 개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경험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특수목적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은 종교관광분야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는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종교관광협회(The World Religious Travel Association)에 따르면 종교관광은 연간 180억 달러의 수익을 자랑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여행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이일주·고주희·이수호, 2016: 203-222).

최근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관심은 소학교회를 필두로 한국도서(섬)학회와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신우회 등 여러 단체를 포함한 전라남도과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준경 전도사의 신앙생활을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박명수, 2016: 150-168; 양정, 2011: 63-86; 이만신, 2014: 84-87; 정태기, 2015: 86-88; 주승민, 2013: 30-34; 2017: 9-52)는 관련 교회와 기관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지순례여행(聖地巡禮旅行)’이라는 이름으로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殉教)하였던 기독교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선행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문준경 전도사 기독교 유적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성지가 다양한 신앙생활을 위한 성지순례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장소에는 상업화로 인한 종교 이미지 훼손이 확인되기도 한다(김중기, 2000: 193-20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아래 노두길¹⁾로 연결된 4개 섬(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진섬)에서는 2019년 11월 예수의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 작은 예배당과 연결된 순례길이 완성되면서 비대면 시대의 관광콘텐츠로 각광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지순례 장소를 찾는 관광객의 기독교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를 위한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성지순례여행’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문준경 전도사 유적지 현장조사(2019년 7월 20일~21일, 2020년 10월 24일~25일, 2021년 7월 10일~11일, 총3회)를 바탕으로 기독교 종교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에 두었다.

1) 본디 두 섬을 잇기 위해 갯벌 위에 돌을 깔아 왕래하던 길을 뜻하는 ‘노두길’이 문준경 전도사 앞에서는 ‘고무신 행진’을 낳은 복음의 통로로 변모했다.

II. 성지순례여행에 관한 고찰

1. 성지순례여행의 개념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관광(tourism), 여행(travel), 여가 또는 레저(leisure), 놀이(play), 레크레이션(recreation) 등의 다양한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자동화, 지식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소득의 증가, 여가 시간의 증대, 교통수단의 발전 등으로 인해 관광 관련 산업은 숨 가쁜 경쟁에서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Dumazedier(1967; 1985: 183-197; 1990: 143-161)가 지적한 ‘쉽 또는 휴식, 기분전환,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시된 성지순례(聖地巡禮)의 개념은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거나 신의 가호와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성지 또는 본산(本山) 소재지를 차례로 찾아가 참배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성지순례여행의 개념은 종교활동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더불어 관광객들은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유산 답사, 해양레저관광, 테마관광 등 특수목적관광(SIT)을 선호하는 등 즐기거나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 행태가 다양화되면서 최근에는 ‘관광(觀光)’과 ‘여행(旅行)’이 종교 관련 사적지와 연계되어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종교유산 관광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가톨릭신문, 2007; 박의서, 2011: 122; 이일주·고주희·이수호, 2016: 203-222).

관광객(tourist)은 관광지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고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여행자(traveller)는 마치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pilgrim)처럼 여행 중에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불편함과 고통, 고생을 감내하며 고민하면서 여행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행자와 순례자가 닮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김훈중(2003), 송현동(2019: 47-68), 이병원(2009: 1-20), 이웅규(2006: 39-8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성지순례여행의 일반적인 개념을 “역사와 유서가 깊은 성지를 믿음으로 방문하는 종교적인 의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하는 여행의 속성을 지닌 문화관광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는 성지순례여행은 “일반적인 관광목적의 순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현장에서 익히고, 성지에 관련된 지리, 역사, 문화, 환경, 언어 등의 배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직접 상고하며 은혜스럽게 체험하는 기회의 여행”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김훈중, 2003: 2).

이러한 성지순례여행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이웅규, 2006: 42). 첫째, 성지순례여행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기도 행위이다. 둘째, 성지순례여행은 세상사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셋째, 성지순례여행은 죄를 끊고 새 삶을 다짐하는 참회 행

위이다. 넷째, 성지순례여행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다. 다섯째, 성지순례여행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다. 여섯째, 성지순례여행은 약속하신 길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다. 일곱째, 성지순례여행은 주님과 함께 가는 수난의 십자가의 길이다. 여덟째, 성지순례여행은 형제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잔칫길이다. 아홉째, 성지순례여행은 신앙 선조들을 따르는 순교자적 결단 행위이다. 열째, 성지순례여행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선 종말론적 행위이다.

2. 성지순례여행의 참여동기

문준경(文俊卿, 1891~1950) 전도사의 성지순례여행의 목적은 문준경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신앙심을 더욱 공고히 하며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성지순례여행과 관련한 선행연구 경향은 대부분이 성지순례의 이론적·종교적 관점으로써의 성지의 종교사적 의의를 고찰하거나, 성지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성지순례와 여행을 결합하여 성지순례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성지순례여행에 대한 이론적, 문헌 검토 중심의 연구는 성지순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우혜란, 2008: 35-66).

기존의 성지순례여행 참여동기에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기독교 성지순례 여행상품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지순례여행 참여동기를 개인적인 신앙심 제고, 성지 여행답사, 종교적 연구, 학문적 연구, 성직자로서의 자질과 견문 향상 등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설혜심(1998: 207-226)은 중세 유럽의 순례의 대중성 분석에서 성지순례의 동기를 회개를 통한 사회복귀, 기복신앙, 휴가 등으로 분석하였다. 권종현·정익준(2007: 365)은 성지순례여행의 참여동기를 성지에서의 기도와 예배, 신앙의 회복, 깊이 있는 신앙생활, 성전을 직접 보기 위해, 교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기, 가족의 행복과 축복의 소망 등으로 분석하였다. 김정희·박은숙(2013: 35-54)은 성지순례 참가동기와 매력성이 성지순례 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해, 오정근(2013: 221-237)은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종교관광의 참가동기 및 매력속성과 참가자 만족 간 영향관계 연구를 통해, 이양림·김영미(2018: 157-185)는 기독교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통한 성지순례자의 관광동기 연구를 통해 성지순례여행의 동기는 사회적 탐구, 종교 체험, 믿음체험을 위해 성지순례여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중 이양림·김영미(2018)는 ‘사회적 탐구’의 동기의 유형으로는 일상탈출, 교육, 신기성을 꼽았으며, 그 외 사회관계 촉진을 위한 ‘종교 체험’을 통해 성스러운 분위기 경험을 유도하거나, 다른 문화와의 경험, 영적 위안 등을 위한 ‘믿음 체험’ 혹은 ‘영성 체험’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주요 참여동기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희(2018: 27-37; 2021: 533-545)도 성지순례 관광동기, 매력속성에 기인한 만족도 등을 검증하여 성지순례에 있어 체계적인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관광서비스 상품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지순례는 참여하게 되는 동기에 따라 종교적 만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환경적 만족과 종교적 만족을 제시했는데, 특히 종교적 만족은 환경적 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종교적 체험은 종교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성지순례 참여동기와 마찬가지로 성지순례가 갖는 매력적 속성에서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신뢰성, 확산성, 행동적 비용의 3가지 서비스품질이 충족되었을 때 성지순례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양승탁·이승곤·유진룡(2018: 195-211)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연구를 통해 종교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교관광에 관여되는 참여동기는 ① 종교적 호기심, ② 영성, ③ 축원, ④ 일탈, 총 4개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종교관광 참여동기가 관광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축원 동기가 태도 형성과 관련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종교관광객들의 신앙적 매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영성과 주변인들의 축원 동기를 통해 남양성모성지에 대한 긍정적인 방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는 종교관광객의 열망을 형성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 열망은 종교관광객들의 행동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지순례 참여동기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앙심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건강과 행복 추구, 체험목적의 여행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지순례 참여동기를 실증분석한 최근의 연구들(권종현·정익준, 2007: 363-381; 김정희·박은숙, 2013: 35-54; 박은숙·김귀자, 2014: 79-100)은 참여동기를 단일한 요인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지순례 참여동기와 참여 이후의 행태 분석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지순례를 참여하는 동기유형을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순례 참여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성지순례 행태 파악으로 성지순례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 성지순례 참여동기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지순례여행에 관한 연구는 참여동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을 개발하는 방안으로서 참여동기를 세분화한다고 하면, 크게 신앙적 동기와 학습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앙적 동기는 성지순례 참여동기가 개인적 순수 만족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성지순례여행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발적

인 신앙적 신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적 동기는 문준경 전도사 관련 성지에서의 예배를 통한 즐거움, 신앙심 회복, 회개, 축복을 소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학습적 동기는 성지순례가 신앙심 고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성지순례여행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즉, 성지순례여행을 통해 성지와 기독교 및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의 발자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좀 더 성숙한 영적 가르침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학습적 동기는 문준경 전도사 관련 성지 탐방을 통해 기독교와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성경 이론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문준경 전도사의 이해와 성지순례여행의 평가와 과제

1) 문준경 전도사 정보오류 사례 고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 중의 하나가 전라남도 신안군이다. 크고 작은 섬들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의 복음률은 35%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이다.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 2,200여 명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고, 작은섬에 위치한 교회만 11개이다. 예로부터 섬사람들은 토속 신앙을 믿으며 살아왔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들로서는 바다의 신, 바람의 신, 태양의 신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런 오랜 전통으로 인해 섬 지역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였다. 이런 곳에 개신교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문준경 전도사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런데 신안 증도에 위치한 「문준경 순교기념관」 설명문에서 제시된 “소박받고 평생 버림당함으로 살아낸 고난의 세월”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기타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며느리였기 때문이다. 사실이 왜곡되어 전해진 이유는 문준경 전도사의 수양딸 같았던 백정희 전도사의 증언을 토대로 한 순교자 문준경에 대해 최초로 다룬 『섬마을의 순교자』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에 기인하고 있다. 정원영(2019) 목사에 의하면 “백정희 전도사는 문준경 전도사와 1940년에서 1950년 순교 직전까지만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문준경의 초기 결혼생활을 완전히 알고 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정목사는 “결혼 초기의 정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백정희의 입장으로는 부지불식간에 퇴박당한 것으로 각인되어 실제와 다른 증언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외 기성 총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故이만신 목사는 기성 총회 잡지 『활천』 2014년 3월호에 “문준경 전도사를 그리워하며”라는 기고문을 통해 “문준경 전도사와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우리 할머니가 문준경 전도사의 손위 시누이가 되고, 어머니는 문준경 전도사의 언니의 딸이니,

아주 가까이 지내며 우리 집에 드나드셨다.”며 “또한 신앙적 입장에서 보아도 최초의 (증동리교회) 주일학생이다. 그분과의 만남은 나에게서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준경 전도사의 신혼 초 이야기가 잘못 증언된 부분이 있었기에, 나는 소박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곤 했다.”며, “잘못된 부분은 연구자들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김철영, 2020b).

2) 문준경 전도사 관련 성지순례여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와 관련된 성지순례여행을 허명섭(2004)의 분석과 연계하여 살펴 본 결과,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속에는 한 알의 밀알의 신비와 또 다른 생명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헌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지순례여행자들에게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자적 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와 신앙을 통해 기독교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성지순례여행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와 신앙에 대한 조명 작업이 기독교계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사업은 주로 관련 있는 몇몇 사람이나 혹은 기념사업회, 성결교단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자적 신앙전통이 가족사 혹은 개교회사적 의미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문준경 전도사의 후손들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문준경 전도사에 대한 조명 작업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독교계의 상징인 순교자적 신앙의 전통을 제고하기 위해 범 기독교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 전통적으로 성결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데는 여타 교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를 정리 보존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면에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기독교계의 소중한 전통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순교자적 신앙전통의 보존 및 승계를 위해 범 기독교계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문준경 전도사의 신앙을 대중화하는 작업을 통해 기독교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4세-14세)과 MZ세대는 보고 느끼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유적지의 바다를 실 사이 없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킬만한 문준경 전도사 관련 웹툰이나 만화, 영화,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공연 등의 불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OSMU(One Sources Multi-Us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유적지는 잘만 계발하여 사용하면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신

양적 자원을 갖고 있다. 문준경 전도사의 생애와 신앙은 그 대표적인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소재들을 웹툰이나 만화, 영화, 연극이나 뮤지컬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준경 전도사 관련 사적지에 대한 보존 및 복구와 성지화 작업을 비롯하여 이를 연계한 성지순례여행상품 발굴 및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개교회의 야외활동, 청년 학생들의 수련회를 비롯한 각종 활동과 이들 장소와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천주교 등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진척되고 있다. 우리 기독교계는 이제 역사의 정리와 보존 그리고 승계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III.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유적지 현황분석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역사 유적지에 대한 자료는 김아영(2020a; 2020b), 전정희(2017a; 2017b; 2021), 정원영(2019)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1.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신안군 증도면 문준경길 234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은 평일에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찾는 순례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이다. 개교회 중심으로 한 해 10만여명이 찾는 기독교 최대의 성지 중의 하나가 됐다. 2007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남동지방노회의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청원으로 시작된 건설사업은 2013년 5월 12일 대지 8418㎡에 본관 1395㎡와 생활관 1084㎡ 각 1동을 지으면서 마무리됐다. 기념관은 불과 400m 거리 해안의 순교지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2. 전남 목포시 북교동 성결교회

북교동교회는 호남 최초의 교회이자, 문준경 전도사의 첫 신앙 모태가 된 교회이다. 북교동교회(北橋洞教會, 1925~)는 성결교단 소속의 교회이다. 1925년 5월 2일 장석초 전도사를 담임으로 목포시 죽동 132번지에서 시작되었다. 1928년 3월 목포시 북교동 191번지로 이전하고 김응조, 이성봉 목사가 차례로 담임을 맡았으며, 1935년 12월 북교동교회로 개명하였다. 1936년 4월 곽재근 목사가 4대 담임으로 부임하였는데, 그해 성결교단의 분열 사건인 하나님의 교회 사건으로 곽재근 목사

와 그의 추종 신자 다수가 나가 측후동교회를 세웠다. 북교동교회는 이후 김태일, 이우영 전도사가 교회를 이끌었으며, 1943년 12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해방이후 1945년 10월 김신근 전도사가 7대 교역자로 나서며 교회를 복구하였다. 한국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를 지낸 이성봉 목사가 1948년 재차 부임하여 담임하였으며, 북교동교회 출신의 문준경 전도사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기에 신안 증도에서 순교하였다. 북교동교회는 1962년 11대 홍순균 목사가 시무할 때 김일환 성도를 교회 최초로 장로 장립하였다. 1992년 예배당 화재로 인해 새 예배당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 15대 담임으로 부임하여 시무한 김정 목사에 이어 2012년 김주현 목사가 1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21년 현재 성도들과 함께 예배, 교육, 구제, 봉사, 전도에 힘쓰고 있다(김양호, 2016: 218-219).

3. 전남 신안군 임자도 진리교회

서울 경성성서학원 입학(1931년 5월) 후 이듬해 문준경은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1932년 7월에 설립했다. 임자도에는 남편과 소실이 살고 있어 박해가 심했지만, 그들마저 안고 구원의 길로 같이 가고자 했다. 진리교회는 이관일과 그의 아우 이관성이 기둥이 돼 주었다. 1950년 10월 각기 장로와 집사였던 두 사람은 가족 11명, 교인 35명과 함께 48명 전원이 순교했다. 그래서 진리교회 마당에는 48인의 순교자 이름이 비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²

1950년 6·25전쟁 발발 후인 10월 5일 이관일은 ‘백산 솔밭’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어머니(당시 78세), 동생 이관성 등과 함께 큰 아들 이인재만 남겨두고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그 현장은 비단 그리스도인 이관일 가족만이 아니었다. 지주이거나 배웠거나 예수쟁이면 반동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했다. 그 솔밭 구덩이에서는 대창에 찢리고, 총상에 목숨이 붙어 있던 부상자의 신음이 몇 날 며칠 이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 구할 수가 없었다. 산 자들은 귀를 틀어막아야 했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한다. 살아있는 것조차 지옥이었다고 한다. 1950년 9·28수복 이후에도 지방 치안은 좌익세력이 장악한 곳이 많아 이런 만행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진리교회가 있었던 임자도도 예외는 아니었다(국민일보, 2017a).

2) 문준경 전도사가 최초로 세운 임자도 진리교회 48인 순교의 내용은 임자진리교회 기둥이셨던 순교자 이관일장로(아들 이인재목사) 일가족(3대) 13인과 교인 35인 전체 48인이 밀실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다. 이관일 장로는 묶인 채로 노모를 등에 업고 5살 어린아이와 함께 끌려가서 창에 찢리며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다. 이때 폭도가 “죽을 놈이 웬 기도냐?”며 비난했지만 이관일 장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영적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와 함께 같은 날인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거룩하고 고결한 순교의 길을 택했다. 임자진리교회 신자들은 교회 앞마당에 48인 순교기념탑을 세워, 순교신앙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4.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교회

증동리교회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면소재지인 증동리에 문준경 전도사가 1933년 9월에 세운 교회이다. 처음 문준경 전도사가 이 마을을 전도할 때쯤에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성도들의 집을 오고 가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성도들은 예배당을 짓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문준경 전도사의 시숙 정영범이 먼저 발벗고 나서 옥지에서 중고 건축자재를 구해 증동리 선착장까지 운반하였다. 교인들은 기뻐했으나, 정작 문제는 교회를 지을 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정영범의 손녀인 옥순이 정영범에게 찾아가 말했다.

“할아버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 집이 먼저 본을 보여서 성전터를 바쳐요. 우리 집의 텃밭이 교회가 세워지는 성전터가 된다면 이런 영광스런 일이 어디 있어요?”

손녀의 뜻밖의 제안에 정영범은 그 의견을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땅을 바치게 된다. 교회를 지을 자재를 구하기 위해 옥지까지 나아가 동분서주했던 그가 이제는 예배당을 위한 터까지 바친 것이다. 터가 생기자, 교회를 짓는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인들은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다가도 날이 저물면 선착장에 가서 건축자재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해가 누엣누엣 지고, 새벽빛이 마을에 비출 때까지 기왓장과 나무들을 나르고 또 날랐다. 여인들은 기왓장을 머리에 이고, 아이들도 손에 나무 한두 점씩 들고 십리길을 걸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여인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굳은 살이 박힐 정도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한 ‘하나님의 일’이었다(한국기독교공보, 2005).

5. 대초리교회

증도 대초리교회는 1935년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교회이다. 현재 증도와 범증도 권역엔 11개 교회가 있다. 모두 문준경 전도사의 손길이 닿은 회중이다. 대초리교회는 2002년 건축됐다. 낡고 오래된 성전은 바닷모래로 건축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노후화 됐을 뿐 아니라 경사가 급한 계단은 연세든 노인이 드나들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지영태 목사와 당회원들은 건축을 결정하고 여러 곳의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평범하게 짓기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특색있는 교회를 짓기 위해 당회원들은 담양의 한 교회를 모델로 설계사 사무소와 논의해 새성전 조감도와 설계도를 마련, 건축에 착공했다. 그렇게 8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대초리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완공됐다(한국성결신문, 2009).

6. 방축리 기도처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이신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적 신앙을 이어가고자 힘쓰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방축교회의 임직예식에서 장립을 받은 박금주 신임 장로의 각오다. 증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이야기를 듣고 자란 박금주 장로는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증도에 돌아와 방축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봉사해왔다. 박금주 장로는 “순교신앙을 계승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하였도다 칭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날 원로장로로 추대된 박문섭 장로도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아 방축교회를 재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쓴 분이다. 증동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박문섭 장로는 1983년 방축교회를 재설립하는데 앞장섰다.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한 후 방축리 기도처가 증동리교회로 합병되었었는데 뜻을 같이 한 성도들과 함께 방축교회를 재설립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7. 전남 신안군 증도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문준경전도사 순교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에 있다. 2009년 12월 16일 신안군의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며 섬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한 곳이다. 그 순교지는 오늘날 기독교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관리하고 있다. 문준경 전도사의 시신은 순교 직후 증동리교회 뒷산에 매장됐고 2005년 지금의 순교지로 이장됐다. 1964년 그의 신앙의 제자들은 ‘여기 도서의 영혼을 사랑하시던 문준경 전도사님이 누어 계시다’는 추모석을 세웠다. 추모석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빈한 자의 위로되고 병든 자의 의사, 아해 낳은 집의 산파, 문맹퇴치 미신타파의 선봉자, 압해 지도 입자 자은 암태 안좌 등지에 복음 전도, 진리 증달 대초리 방축리 교회 설립, 모든 것을 섬사람을 위 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 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그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는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 누워 있다. 순교터에선 문준경 전도사가 개척했던 증동리교회, 그리고 순교자기념관이 보인다. 그 뒤로 증도와 부속 섬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정봉이 완만하다. 문준경 전도사는 생전 산정봉 정상에 올라 기도를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지

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 교단, 기독교적 차원에서 문준경 전도사의 노력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성지순례여행의 발전 방향, 그 한계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8. 12사도(使徒) 순례길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11개의 교회 중 8개의 교회는 증도에 있고, 3개의 교회는 병풍도에 있다. 증도에 있는 교회들이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가 직접 개척했거나 기도처로 만들었던 곳이 나중에 교회로 세워진 반면, 병풍도에 있는 교회들은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한 이후에 세워졌다. 병풍도의 어머니 교회로서 병풍교회가 1986년 소약교회를 개척했다(기독교헤럴드, 2020). 문준경 순교기념교회로 병풍교회가 1951년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이곳에는 여러 명의 신자가 있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살아생전에 증도대교 아래에 있는 광암나루터나 사옥도나루터에서 풍선(뚝단배)을 타고 병풍도로 들어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병풍도의 끝 섬 소약도까지 노두길을 오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길이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의 길, 사명의 길이다. 이러한 전남 신안군의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약도, 진섬, 탄섬 5개의 섬에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딴 12사도 예배당을 건설했다. 노두길로 연결된 5개의 섬에 위치한 12개의 예배당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모티브가 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순례자의 섬’ 또는 ‘한국의 섬티아고’라고 부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 섬티아고 순례길은 12km이다.

바다에 떠 있는 모섬인 증도면 병풍도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약도, 진섬 등 5개 섬은 노두길로 한 섬처럼 이어져 있다. 밀물 때 섬과 섬을 잇는 노두길이 바다에 잠겨 다시 5개의 섬으로 변하는 곳이다. 오래전 섬과 섬 사이 갯벌에 돌을 쌓아 만든 징검다리 길이 노두길이다. 지금은 시멘트 포장 이 되어 차량 통행도 가능하지만,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져야만 차마가 다닐 수 있어 ‘기적의 순례길’로도 불린다(국민일보, 2020a). 전라남도가 5년에 걸쳐 40억 원을 지원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공모에 당선되었고, 모티브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얻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보여행을 응용하여 ‘문준경 순례길’로 명명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작은 예배당을 짓고 이제는 “12사도 순례길”로 조성하였다.

IV. 문준경 전도사 기독교 유적지 성지순례여행 발전방안 모색

1. 문준경 전도사 도보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개발

문준경 전도사 도보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3차례의 답사와 신안 소약도에 거주하는 문준경 전도사 관계자와의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 도보성지순례 동선 계획안을 설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상한 여행코스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잠재방문객의 수요 조사에 따른 후속 연구를 통한 참여자들의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목적 등을 분석하여 자유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준경 전도사의 순례여행코스는 Table 1에서 제시된 일정계획을 기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성성서학원(서울)-12사도 순례길-소약교회-임자진리교회(임자도)-증동리교회-대초리교회-제월리교회-우전리교회-문준경 전도사 순교지-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등을 추천하고자 한다.

Table 1. Preacher Moon Jun-kyung's walking pilgrimage itinerary plan

Time Schedule	First Day	Second Day
Am 4:00 to Am 5:00 Start	Departure Worship	Morning Prayer and Meditation
Am 8:00 to Am 9:00	Breakfast Upon Arrival	Breakfast
Am 9:00 to Pm 12:00	Before Departure from School, etc. Program 1: (Find Errors in the Contents of Evangelist Jun-kyung Moon)→Start Worship → Holy Land 1 (Martyrs Memorial Hall)	Program 2: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Drama)
Pm 12:00 to Pm 13:00	Lunch and Rest	Lunch
Pm 13:00 to Pm 18:00	Holy Land 1: (Missionary Moon Joonkyung's martyrdom) Holy Land 2: (The 12 Apostles Pilgrimage) Holy Land 3: (Imjado Christian Experience Center)	Departure from school or place of departure→ Appreciation service after arrival → Disbandment
Pm 18:00 to Pm 19:00	Dinner and Rest	
Pm 19:00 to Pm 21:00	Video viewing of dramas, plays, musicals, etc.	
Pm 21:00 to Pm 22:00	Program 1(Team Members) and Prayer for the Country	
After Pm 22:00	Sleep	

2. 순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실길’ 활용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는 42.7km에 이르는 도보 및 자전거 여행코스를 ‘모실길’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다. 총 다섯 개의 코스 중 문준경 전도사의 유적들이 밀집된 곳은 제5코스인 ‘보물섬·순교자 발자취길’이다. 약 두 시간에 걸쳐 7km가량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가면 문 전도사의 묘역, 순교기념관, 증동리교회, 방축리교회, 기도바위 등을 두루 돌아볼 수 있다. 또한 증도에 ‘보물섬’이라는 칭호를 안겨준 신안 앞바다 해저유물발굴 기념비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 기도바위가 있는 산정봉 정상에 오르면 한반도 지형을 꼭 빼닮은 해송숲의 절경이 한 눈에 보인다.

특히, 제2코스 ‘갯벌공원길’을 걷다 보면 우전리교회, 대초리교회에 이어 유명한 화도노두길이 나타난다. 노두길은 만조 때에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물때를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다. 화도로 가면 화도성결교회와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 등을 만나게 된다(정재영, 2016). 기점도와 소악도를 비롯한 신안의 섬들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인연이 깊은데, 당시 보따리를 이고 노두길(바닷물이 빠지면 생기는 길)로 작은 섬을 건너다니던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적인 전도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두길이 있는 ‘갯벌공원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문준경 전도사가 한 해 고구신이 아홉 켄레나 닳을 정도로 선교에 앞장서 신안에만 100여곳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너다녔던 노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신안군의 ‘모실길’을 활용하여 도보순례여행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12사도 순례길과는 또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이나 코스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소악교회와 연계

전라남도는 2017년 기점도와 소악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고 5년간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도면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특수성과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최초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라는 유일성을 포함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Heritage)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제를 ‘순례자의 섬’으로 정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착안해 ‘12사도 순례길’을 조성했다. 삶에 지치거나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종일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섬을 때로 기도하며 때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순례하게 하자는 취지다. 대기점도와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을 잇는 12km 길에 예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작은 예배당들을 지었다. 12사도의 집은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종교가 없는 일반인에게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치유의 공간이다. 종교를 떠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12사도 순례길 중앙에 있는 소악교회

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소악도에 위치한 소악교회 임병진 목사는 '12사도 순례길'이 단순 관광에 이르지 않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의미 있는 영성 순례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담임목사로 부임한 임병진 목사는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11개 교회 중 8개가 증도에 있고 3개는 병풍도에 있다는 점과 신안군 증도에 있는 교회들이 문준경 전도사가 직접 개척했거나 기도처로 만들었던 곳이 나중에 교회로 세워졌다는 점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병풍도에 있는 교회들이 문준경 전도사가 6·25전쟁 때 순교한 후 세워졌고, 병풍도의 어머니 교회인 병풍교회를 통해 1986년 소악교회가 개척됐다는 점을 연계하여 문준경 전도사의 영성이 담긴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준경 전도사가 증도대교 아래에 있는 광암 나루터나 사옥도 나루터에서 병풍도로 들어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병풍도의 끝 섬인 소악도까지 노두길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점에서 12사도 순례길은 바로 문준경 전도사가 전도했던 사명의 길로서의 성지순례여행의 핵심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문준경 전도사 일대기를 그린 책 '천국의 섬', '문준경에게 인생의 길을 묻다' 등을 펴낸 임병진 목사는 2007년부터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조명하는 1박 2일 코스의 '증도 순례'를 100회 이상 이끌었을 정도로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수가 100여명에 불과한 기점도와 소악도에 식당이나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악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순례자의 집(자랑께)'과 카페(쉬랑께)는 성지순례여행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악교회와 연계하고, 임병진 목사가 이끌어온 증도 순례와 12사도 순례길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여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성지순례여행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소악교회와 12사도 순례길을 찾는 기독교인에게는 영적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며, 일반 순례객과 관광객에게도 주님을 섬기듯 환대하는 소악교회 임병진 목사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성지순례여행이란 성지와 순례, 여행이라는 용어가 결합한 것으로서,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성스럽거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지순례여행은 신앙적 고취나 종교적 경험을 얻기 위한 종교적 의례의 일종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독교 130여 년의 역사를 말없이 담고 있는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에 관한 성지순례여행 개발 방안으로 가시적으로 비약하는 교회의 발전과는 달리 훼손 위기에 놓인 기독교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전남 신안군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역사 유적지 등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순례여행코스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템플스테이의 경우와는 다르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교회 및 교단에서는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지정·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은 도시개발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과 흡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신안군이나 소악교회와 같이 개별 기관이나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역사 유적지 조성사업은 특정 종교 차원도 아니고 경제적 차원도 아닌 역사적 소명 의식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해외여행자의 증가와 더불어 해외 성지순례를 떠나는 여행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화유산이 갖는 가치를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의해 유산(Heritage)이 갖는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들어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대체로 국내의 성지순례여행보다는 해외 성지순례여행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국내 성지순례여행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 이런 수요를 국내로 돌려 급감하고 있는 국내 기독교 인구의 증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12사도 순례길’을 문준경 전도사의 순수 영성과 순교와 연계하여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가고 있는 국내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 내부에서 찾고 외부 환경에 부응하는 성지순례여행을 개발하는 방안을 주요 목적으로 정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에 의미를 부여하며 많은 사람이 쉽게 찾고,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성지순례여행’과 연결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의 도보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제시,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 상품의 특징 극대화, 순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실길’ 활용, 소악교회와 연계,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 관련 성지의 지속적인 조성의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중한 전도 및 순교 역사를 담고 있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결국 지

속 가능한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의 개발이 인간지향적이 아닌 자연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 지향적인 개발의 방향은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주체의 영리 추구 여부에 따라 여행사와 같은 여행전문기획자와 개인 혹은 기독교 단체의 개발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모두가 전남 신안군의 해양생태환경을 고려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역사문화유산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자료의 수집·정리에 관해서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기록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곡되고 그릇된 자료와 영상, 기사 등을 활용하는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자료나 해설사는 지양해야 하고 관련 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문제와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역사문화유산 전문 해설사 및 안내자의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유적지에 대한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문 콘텐츠적 내용을 바탕으로 구상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 설문 및 방문 욕구도 파악 등 정량적 분석을 통한 구체적 모형설정은 추후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향후 연구를 바탕으로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와 순교 영성을 좀 더 실제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한국기독교의 영성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권중현·정익준 (2007). 기독교 성지순례 참가동기, 성지 매력속성, 성지순례 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계연구. *관광레저연구*, 19(4), 363-381.
- [Kwon, J. H. & Chung I. J.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ive Participating in the Christian Pilgrimage, Attraction Attribution of the Holy Place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9(4), 363-381.]
- 김상원 (1992). **기독교 성지순례 여행상품 선호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S. W. (1992). "A Empirical Study on Christian Pilgrimage Tour package". Masters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김양호 (2016). **목포 기독교 이야기**. 서울: 세움북스.
- [Kim, Y. H. (2016). *Christian Story of Mokpo*. Seoul: seumbooks.]
- 김정훈. (2010). 국내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193-213.
- [Kim, J. H. (2010). How to Develop and Use the Field Trip Programs of Christian Cultural Heritage.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33, 193-213.]
- 김정희 (2018). 성지순례상품의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관계. *서비스마케팅저널*, 11(2), 27-37.
- [Kim, J. H.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Pilgrimage Program. *Services Marketing Association*, 11(2), 27-38.]
- 김정희 (2021). 기독교인 성지순례관광의 참가동기, 성지 매력속성, 서비스품질, 전체적인 만족도와 로열티(재방문, 추천) 관계 연구-서비스품질(SERVQUAL과 SERV-PERVAL)을 중심으로-.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pp. 533-545.
- [Kim, J. H. (202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Christian pilgrimage tours, attraction attributes, service quality, overall satisfaction, and loyalty (revisit, recommendation) - Focusing on service quality - *2021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Spring Conference*, pp. 533-545.]
- 김정희·박은숙 (2013). 성지순례 참가동기와 매력성이 성지순례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산업학회*, 38(3), 35-54.
- [Kim, J. H. & Park, E. S. (2013). An influence to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motive and attractiveness in pilgrimage. *Korean Tourism Industry Research Association*, 38(3), 35-54.]
- 김중기 (2000). 새 천년을 위한 영성 연구의 방향. *신학논단*, 28, 193-206.

-
- [Kim, J. K. (2000). A Study of Spirituality from the New Millennium Perspective. *Theological Forum* 28, 193-206.]
- 김흔중 (2003). **새천년 성지순례의 실제**. 경기: 청담북스.
- [Kim, H. J. (2003). *The reality of the new millennium pilgrimage*. Gyeonggi: chungdambooks.
- 박명수 (2016). 문준경전도사와 한국 근대 역사. **성결교회와 신학** 35권, 150-168.
- [Park, M. S. (2016). Pastor Jun-kyung Moon and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35, 150-168.]
- 박은숙·김귀자 (2014). 인센티브 관광을 통한 참가동기가 매력성, 만족에 미치는 영향-성지순례관광을 중심으로. **MICE 관광연구**, 36, 79-100.
- [Park, E. S. & Kim, G. J. (2014). Influence on Attractiveness and Satisfac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an Incentive travels -Focused on the Pilgrimage-. *Journal of Mice & Tourism Research(JMTR)*, 36, 79-100.]
- 박의서 (2011). 한국 종교관광의 정책 방향과 성공 사례. **관광연구저널**, 25(5), 121-137.
- [Park, E. S. (2011). Policy Direction and Successful Cases of Korean Religious Tourism.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5(5), 121-137.
- 백규리·이계희 (2021). 종교관광 경험이 여행자의 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23-38.
- [Baek, K. R. & Lee G. H. (2021). The effect of religious tourism experience on traveler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 case study of Christian pilgrimage.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5(6), 23-38.
- 설혜심 (1998). 16·17세기 영국 관상학의 사회적 기능과 변천. **역사민속학**, 7, 207-226.
- [Sul, H. S. (1998). The social function and change of British contempl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7, 207-226.]
- 송현동 (2019). 성지순례의 관광사적 의미 고찰. **종교문화연구**, 32, 47-68.
- [Song, H. D. (2019). A study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pilgrimage to the Holy Land.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32), 47-68.]
- 양승탁·이승곤·유진룡(2018).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12), 195-211.
- [Yang, S. T., Lee, S. K. & Yoo, J. R. (2018).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tourists' motivation an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2(12), 195-211.]
- 양정 (2011). 존 웨슬리의 영성에서 본 고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영성. **신학과 선교**, 39, 63-86.

- [Yang, J. (2011). A Study of Joon Kyung Moon looking through John Wesley's spirituality. *Christian Theology Institute Center*, 39, 63-86.]
- 오정근 (2013). 종교관광의 참가동기 및 매력속성과 참가자만족 간 영향관계-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7(1), 221-237.
- [Oh, J. K. (2013).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Attraction Attributes of Religious Tourism on Satisfaction -Focusing on Christian Pilgrimage.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7(1), 221-237.]
- 우혜란 (2008). 동시대의 “순례”와 “성지”에 대한 고찰. *종교학연구*, 27, 35-66.
- [Woo, H. R. (2008). Discussion on Contemporary “Pilgrimage” and “Sacred Place”. *Religious Studies*, 27, 35-66.]
- 이만신 (2014). 문준경 조명: 문준경 전도사를 그리워하며. *활천*, 724(3), 84-87.
- [Lee, M. S. (2014). Missing Pastor Junkyung Moon, *The Liveing Water*, 724(3), 84-87.]
- 이병원 (2009).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7(2), 1-20.
- [Lee, B. W. (2009). A Study of Pilgrimage tourism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7(2), 1-20.]
- 이양림·김영미 (2018).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통한 성지순례자의 관광동기-기독교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2(2), 157-185.
- [Lee, Y. L. & Kim, Y. M. (2018). Pilgrimage Motivations through Constructivism Grounded Theory: Focused on Christian Pilgrimage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42(2), 157-185.]
- 이용규 (2006). 유관순열사 기독교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의 개발방안. *유관순 연구*, 11, 39-86.
- [Lee, W. K. (2006). The Ways of Development on th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of Christian Historic Relics for YuGwanSoon's Experiences. *YuGwanSun Research*, 11, 39-86.]
- 이일주·고주희·이수호 (2016). 관광활동 특성에 따른 여행산업의 종교관광 상품개발 기본 연구. *관광연구*, 31(2), 203-222.
- [Lee, I. J., Ko, J. H. & Lee, S. H. (2016).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ourism Product of Travel Industry Based on Tourism Activity Characteristics.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31(2), 203-222.]
- 정원영 (2019). 영원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문준경-다시 보는 섬마을의 순교자. **CESI 한국전도학연구소**.
- [Jung, W. Y. (2019). *Eternal Evangelist, Man of God Jun-kyung Moon - A Martyr of the Island Village Seen Again*. CESI.]

- 정태기 (2015). 문준경 조명: 바른 역사적 평가를 바라며. **활천**, 742(9), 86-88.
- [Chung, T. K. (2019). Jun-Kyung Moon Illumination: Hoping for a Correct Historical Evaluation. *The Liveing Water*, 742(9), 86-88.]
- 주승민 (2013). 특집-문준경기념관 들여다보기; 역사적 의미를 채우라. **활천**, 719(10), 30-34.
- [Chu, S. M. (2013). Special Features - A look at the Moon Jun-kyung Memorial Hall; Fill in historical significance. *The Liveing Water*, 719(10), 30-34.]
- 주승민 (2017). 한국전쟁과 한국 성결교회 그리고 순교자 문준경. **신학과 선교**, 50, 9-52.
- [Chu, S. M. (2017). Korean war and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Depending on Martyrdom of intern Pastor Jun-Kyoung Moon. *Theology & Mission*, 50, 9-52.]
- 허명섭 (2004). 순교자 문준경; 3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에 대한 성결교회사적 평가와 과제. **활천**, 607(6), 42-45.
- [Heo, M. S. (2004). Martyr Moon, Jun-Kyung; 3 Holiness Church historical evaluation and tasks for the martyrdom of Rev. Jun-kyung Moon. *The Liveing Water*, 607(6), 42-45.]
-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London: Collier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Dumazedier, J. (1985). Technical progress, culture and leisure time. *Spettacolo*, 35(3), 183-197.
- Dumazedier, J. (1990). France: leisure sociology in the 1980s. *France: leisure sociology in the 1980s.*, 143-161.
- 가톨릭신문 2007. 2. 25일자. “[방주의 창] 문화유산관광과 성지순례.”
https://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158912. (2021.9.14)
- [“(The Window of the Ark) Cultural Heritage Tourism and Pilgrimage”. Catholic Times(2007.2.25.).Retrieved from https://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158912 (2021.9.14.)]
- 국민일보 2017a. 5. 19일자. “[한국기독교역사여행] 공산당 죽창에 스러진 ‘믿음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480109>. (2021.9.16)]
- [“[Korea Christian History Tour] Preacher Jun-kyung Moon, the ‘Mother of Faith’ who fell into the bamboo spear of the Communist Party”, KUkmIN Il-Bo (2017.5.19.).Retrieved from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480109> (2021.9.16.)]
- 국민일보 2017b. 5. 20일자. “[한국기독교역사여행]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죽창에 여기 스러지다-전남 신안 증도와 순교자 문준경(1891~1950).”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750063>. (2021.9.16)
- [“[Korea Christian History Tour] “Please accept my soul” The mother of faith collapsed here in

a bamboo spear - Jeungdo, Jeungdo, and martyr Jun-kyung Moon (1891-1950) in Sinan, Jeollanam-do”, KUkmIN Il-Bo (2017. 5. 20.).Retrieved from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750063> (2021.9.16.)

국민일보 2020a. 3. 5일자 33면. “문준경 전도사 흔적 따라 ‘12사도 순례길’… “영성의 요람 만들 것.”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6206&code=23111671&cp=nv>. (2021.9.19)

[“The 12 apostles’ pilgrimag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Pastor Jun-kyung Moon...“Creating a cradle of spirituality”, KUkmIN Il-Bo (2020.3.5.).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6206&code=23111671&cp=nv>(2021.9.19.)]

국민일보 2020b. 10. 4일자. “[단독]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소박맞은 여인 아닌 남편 지원으로 섬 사역 일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72682&code=61221111&cp=nv>. (2021.9.19)

[“Martyr Jun-kyung Moon, missionary to the island by supporting her husband, not a simple woman”, KUkmIN Il-Bo (2020.10.4.).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72682&code=61221111&cp=nv>(2021.9.19.)]

국민일보 2021. 4. 9일자. “[한국기독교역사여행] 아버지 순교지에 돌아온 아들, 원수를 사랑으로 갚다-신안 임자도와 순교자 이판일 장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5887&code=23111654&cp=nv>. (2021.9.16).

[“[Korea Christian History Tour] A son who returned to his father’s martyrdom, avenges his enemies with love - Sinan Lim Jado and Martyr Lee Pan-il Elder”, KUkmIN Il-Bo (2021. 4. 9.).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5887&code=23111654&cp=nv> (2021.9.16.)]

기독교헤럴드 2020. 2. 12일자.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사명의 길, 노두길!”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0>. (2021.9.8)

[“Martyr Jun-kyung Moon, the path of missionary mission, Nodu-gil, cherald (2020. 02. 12.).

Retrieved from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0>. (2021.9.8.)]

김철영 2020. 10. 26일자. “순교자 문준경은 효부(孝婦)였다-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알려진 것은 백정희 전도사의 증언에만 의존했기 때문.” 뉴스파워.

<http://www.newspower.co.kr/47600>. (2020.10.26.)

[“Martyr Jun-kyung Moon was a filial piety - she was known as a woman abandoned by her husband because she relied solely on the testimony of preacher Baek Jeong-hee.”, News Power (2020.10.26.). Retrieved from <http://www.newspower.co.kr/47600>. (2020.10.26.)]

한국기독교공보 2005. 9. 7일자.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23)-섬 교회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를 찾아서(1).”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2985350184>. (2021.9.14)

[“A Journey by Faith (23)-Finding Pastor Jun-Kyung Moon, the mother of the island church (1)”. Korea Christian Gongbo(2005. 9. 7.).Retrieved from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2985350184> (2021.9.14.)]

한국성결신문2009년 3. 7일자. “아름다운 성결교회 11-대초리교회.”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 (2021.9.12)

[“Beautiful Holiness Church 11-Daechori Church. kehcnews (2009. 3. 7).

Retrieved from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 (2021.9.12.)]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聖地巡禮旅行) 발전방안 모색

Searching for The Christian Relics of Evangelist Jun-kyung Moon Development plan for th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이응규 (백석대학교)

김농오 (국립목포대학교)

이창훈 (국립목포대학교/교신저자)

ABSTRACT

최근 주목받고 있는 ‘12사도 순례길’을 문준경 전도사의 순수 영성과 순교와 연계하여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가고 있는 국내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순례하는 여행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지를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여행을 개발하는 방안을 주요 목적으로 정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이 쉽게 찾고,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과 일정을 개발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당일, 1박2일, 2박3일 등의 도보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제시, 둘째,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 상품의 특징 극대화, 셋째, 순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실 길’ 활용, 넷째, 소악교회와 연계, 다섯째,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 관련 성지의 지속적인 조성의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문준경 전도사의 소중한 전도 및 순교 역사를 담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지속 가능한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의 개발이 인간지향적이 아닌 자연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 12사도 순례길